

태권도로 휴식을

문체부-태권도진흥재단, '태권 스테이' 시범사업 운영
일반인들도 참가 가능...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새로운 태권도 관광 상품인 '태권 스테이' 시범사업을 14일부터 태권도원에서 진행한다.

태권 스테이는 참가 대상별 맞춤형 태권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태권도 수련자 외에도 누구나 쉽게 태권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운영할 계획이다.

14일과 15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태권도 기본동작과 격과 등이 포함된 '태권도에 반하다'를 시작으로 21일과 22일은 태권도장 수련생들을 위해 전통무예 수련과 발차기가 포함된 '태권도장 놀자'가 진행된다.

이어서 28일과 29일은 20~30대 여성들을 위한 호신술 실전체험 프로그램 '나를 지키는 태권도', 12월 5일과 6일에는 중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위한 태권도 진로교육과 폼새, 겨루기, 심리교육 등을 포함한 '나를 찾는 시간'이 진행된다.

특히,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나를 지

키는 태권도'는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호신용 태권도 체험이다. 위험상황 대처법, 상황별 호신술 실습과 함께 태권도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신체 단련을 비롯한 마음의 안정을 갖는 등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전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 스테이를 주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태권도 수련 인구 증가와 태권도원의 새로운 고객층 발굴, 관광을 융합한 태권도 산업 육성의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태권도를 더욱 재미있게 느낄 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외국인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태권도 관광 상품 '태권 스테이'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4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 등을 분석 후 내년에는 상품성을 강화한 태권 스테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춘향 · 이몽룡의 사랑, 조선팝으로 듣자

21일 퓨전국악 서도밴드 '전라감영 조선팝 콘서트'

조선왕조 500년 옛 위용을 되찾은 전라감영에서 관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색 콘서트가 열린다. 서도밴드의 '전라감영 조선팝 콘서트'다.

관소리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팝 리듬, 멜로디를 입혀 '조선팝'이라는 고유의 장르를 개척한 서도밴드는 지난해 제1회 KBS 국악신예대상 대상과 제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7, KBS2 '불후의명곡' 국악인특집 등에 출연한 실력과 퓨전국악 밴드다.

'전라감영 조선팝 콘서트'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가 ▲몽룡이 남원을 떠나는 이별가 ▲춘향이 옥중에서 이몽룡을 기다리며 애절하게 부르던 노래 '쑥대머리'와 '언제까지' ▲이몽룡이 안행어사가 돼 춘향이와 재회하는 내용의 '내가 왔다' 등 관객들도 하여금 관소리 춘향이 완창을 듣는 듯한 감동과 재미를 전하는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50명까지 볼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선착순 100명에 한해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nBGW791pz7yQ17Up8>)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은 공연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된 문의는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점콘텐츠팀(063-281-2661)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직접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는 동시에 전라감영과 조선팝을 해외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상황을 전주시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이 잠재 관광수원으로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정기적인 크로스오버 공연과 온라인 콘서트로 전주의 매력적인 모습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AI 시대, 융합교육'

전은 장학문화재단, 익산 남성고서 JB 인문학 강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명구)은 지난 12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에서 제44회 '2020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인공지능 중 언어지능 분야의 권위자이자 수학과 코딩을 포함한 융합 교육으로 인문계 학생들을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고 있는 남호성 교사의 'AI 시대, 융합교육'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수학과 AI를 하는 영어 선생님이 유명한 남호성 교수는 자신의 언어공학연구소(NAMZ) 소개념을 시작으로 영어영문학과 연구가 어떻게 AI를 하고, 예일대 해스킨스 연구소에서 senior scientist로 활동하는 이야기, 대학원에서 음성학을 전공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야기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남 교수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학위보다 중요한건 기술과 전문성이고, 여러 무릎을 깊게 파라."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건 단연코 수학과 코딩이다"며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를 강조했다. 남성고 한 학생은 "많은 외부 특강을 들었지만 가장 명쾌한 강의였다. 수학이 싫어 문과를 택했는데 수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성제환 이사는 전라북도의 희망인 남성고 학생들에게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문학 강좌에서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할 예정이니 학교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삶의 수많은 기억들은 '하나의 자화상'

16-28일 gallery숨서 이진 개인전

16일부터 28일까지 'Remember of star' 라는 전시명으로 이진 개인전이 열린다.

이 작가에 의하면 눈으로 실제로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방식이든지 결국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 기억은 재구성되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면서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다. 작품 속 공간은 그런 하나의 자화상과도 같은 기억들을 표현한 것이다.

친절한 듯 표현되어 있지만 무언가 숨겨진, 부족하고, 과하기도 한 모습이 있다. 철저함 속에 우린 그렇게 허술함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우연함과 사고가 생김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 인지한 것처럼 기억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모노톤은 일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컬러에 대응되는 것으로 기억과 연관성을 갖게 했으며, 보색 대비와 빈 공간에 대한 표현은 기억의 반복이나 어떠한 충격에 의해 남겨진 모습으로



작품을 보았을 때 익숙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특정한 기억으로써 시각화한 것이다.

그렇게 관람자는 어느덧 작품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여거나 그저 외면할 수 있으며 무의식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한편 이진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내달 13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서 문중배 서예전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2월 13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글(文字), 그림(繪畫)으로 그려내다'라는 주제로 문중배 작가의 서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중배 작가는 32년간 중국의 서예법첩을 두루 섭렵하며 서예 기법을 수련해왔고, 붓글씨와 소재인 문자를 언어를 기록하는 시각적인 기호체계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림의 이미지로 표현해내려는 의도로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이

번 서예전은 그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전시 작품은 순수 한시와 삶의 지점이 되는 명언 명구 등을 해서, 행·초서, 예서, 전서의 한문 서예로 표현한 30점이다. 작가는 기존의 서예 작품들과는 다른 회화적인 느낌을 담은 다채로운 서예 실험작품의 전시를 통해 서예가 대중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예술로 자리매김하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코믹오페라 '버섯피자' 완주에서 만나요

18일 완주문화예술회관서

완주군이 오는 18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코믹오페라 '버섯피자' 공연을 한다.

코믹오페라 '버섯피자'는 시모어 바랍의 단막극 오페라로 풍부한 유머와 넘치는 희극적으로 연출진이 공연 내내 무대에서 다이나믹한 연기와 예술성 있는 노래로 지루할 틈 없이 관객을 몰입시키는 작품이다.

현대 오페라이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무겁지 않게 유머러스한 연기와 번안으로 대중성에 가치를 두어 오페라 감상의 초보관객과 특히 청소년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버섯피자'는 만남, 사랑, 배신, 질투, 증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해피닝 코미디 형식으로 연극적 요소와 이태리 발칸토 선율을 통해 오페라에 대한 흥미를 잘 구상한 수작으로 오페라의 매력을 살릴 계획이다.

오페라의 저변 확대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도 쉽게 교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버섯피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작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478석에서 230석으로 객석을 축소해 공연할 계획이며 공연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주일 전에 예약 가능하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자체 기획공연, 제작공연,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산대학교 교수합창단은 지난 11일 군산시 동우아트홀에서 교수합창단 창단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군산대 교수합창단 연주회

창단 3주년 맞아... 국내외 가곡·성가·민요 등 선보여

군산대학교 교수합창단(단장 심희옥)은 지난 11일 군산시 동우아트홀에서 교수합창단 창단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주회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테마로 했고, 국내외 가곡, 성가,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의 향연이 펼쳐졌다. 특히 군산대 음악과 학생들(지도교수 최명훈)과의 협연으로 교수와 학생이 하나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한 아름다운 선율은 지역 민들과의 음악을 통한 교감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군산대학교 교수합창단은 2017년 창단되어 현재 2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 다양한 행사의 합창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통한 감성과 치유의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지역 민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심희옥 단장(아동가족학과 교수)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교수님들이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틈틈이 발성과 합창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해 왔다"면서, "코로나19로 안팎이 어려운 시기에 이 음악회가 군산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지역민들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고, 작게나마 위로의 하모니를 들려드릴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김환태문학의 정수를 만나다 | 늘인 김환태 문학제 성료

김미현 평론가, 평론문학상 수상

제12회 늘인 김환태 문학제가 지난 14일 무주읍 소재 김환태문학관 영상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문학사상사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문인협회가 공동 후원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전선자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회장, 류희옥 전북문인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선자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회장은 "김환태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늘인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문학제가 올해

로 열두 번째에 이르렀다"라며 "우리 사회에 문학이 숨 쉬는 한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지리라 확신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늘인 김환태 문학제를 더 뜻깊고 다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약도, 이전 삼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지만 세상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비평문학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지켜낸 김환태 선생의 발자취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며 "김환태 선생의 혼과 열정이 서려있는 문학제가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스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 되고 힘든 삶의 여정을 딛고 피어날 모두의 일상을 고대해

본다"고 전했다.

시상식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미현 교수가 제1회 김환태평론문학상을 수상했다. 비평이라는 그림자의 역설적인 빛을 탐색한 평론집 '그림자의 빛'을 펴낸 김미현 교수는 "문학평론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글을 쓰는 일이 어렵지만 하다"라며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느끼고 있을 때 한 줄기 문학의 빛을 비춰줘서 감사하고 더 겸손한 그림자가 되어 읽고 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